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관련 사진, 문서, 의류, 도서 등
- 문의처 : ☎ 051) 629-8615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 방문 인터뷰
- 문 의 처 : ☎ 051) 629-8600

※ 피해 생존자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Homepage <http://museum.ilje.or.kr>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FoMo

Forced Mobilization
Spring 2021

Vol. 19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FoMo

Forced Mobilization



포모

소식지와 이름이 같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캐릭터 '포모'는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고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포모가 달라졌습니다

강제동원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포모가 새로워졌습니다.
보다 쉽고 친근한, 하지만 가볍지 않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워진 포모는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실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역사관 이슈

- 04 아니, 이게 ○○ 라고?
- 06 새단장 마치고 재개관한
역사관으로 오세요!

온라인 역사관

- 08 나는 강제징용자입니다
- 10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소장 유물 소개

- 12 조선인 징병의 시작

강제동원을 말하다

- 14 지옥섬 군함도에는 지금 무슨 일이?

우리 동네 일제강제동원유적 탐방2

- 16 일제강점기 자원수탈의 현장
부산 수영구 '우암사'

역사관 방문기

- 18 오길 참 잘했다, 역사관
- 19 아이와 역사관

한·일 역사 화해와 연대

- 20 한국사 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린
일본 시민단체

역사관 사용설명서

- 21 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소개
- 22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행사 안내

- 23 우리 함께해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통권 제19호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 **디자인** (주)광장A&C T.051-583-8722 | **주소**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 051-629-8600 **F** 051-629-8619 **Homepage** <http://museum.ilje.or.kr>

아니, 이게 ○○ 라고?

자신들이 겪은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준 아이들의 '검은 성' 변신 대작전

재개관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18일, 코로나 19와 상설전시실 부분정비로 인해 휴관 중이던 역사관에서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인근 학교의 학생들(발도르프학교 8학년)이 수업의 일환으로 역사관 꾸미기에 나선 것입니다. 7층 추모공원에 있는 석재 벤치는 잔디위의 네모난 모양으로 인해 추모비 혹은 묘비를 형상화한 조형물로 오해해 사람들이 앉기를 꺼려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뒤늦게 벤치라는 사실을 알고 직접 사인물을 디자인하고 제

작해 사람들에게 그 용도를 알린 것입니다. 본인이 겪은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준 아이들의 마음 씀씀이라 더욱 예쁘게 느껴집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검은 성'이라 부르며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했던 역사관을 편안히 올 수 있는,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고맙고 오늘 하루도 역사관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힘을 얻어 봅니다.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이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자가 슬퍼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역사관이
무섭고 피하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편히
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산 발도르프학교 8학년 쌍둥이형제
최유현·최정현 군



아이들의 손으로 삭막했던 벤치가 변신 중에 있다.

Before



심포,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아이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짧지만 정확한 안내다.



After

글 | 역사관 김민균

더욱 스마트한 역사관 새단장 마치고 재개관한 역사관으로 오세요!

전시유물 대폭 교체, 4개 국어 패널 마련, 역사관 어플 구축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전시실 부분 개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기증된 유물과 새로 구입한 유물을 중심으로 기존 전시 유물을 절반 넘게 교체하고, 4개 국어 패널을 마련하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을 통해 전시해설을 듣고, 유물 설명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스마트 관람 서비스를 구축 중입니다. 기획전시실에는 '5G 실감형 콘텐츠 및 체험관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AI 대화형 홀로그램 체험관-백범 김구 선생에게 듣는 근대이야기'를 조성하여, 스마트 박물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어플을 통해 전시 및 전시실 안내는 물론 자동전시안내 시스템을 통해 전시 관람 시 자동으로 음성 전시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검색해주세요.

백범 김구 선생님 AI 홀로그램과의 대화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관 어플 다운로드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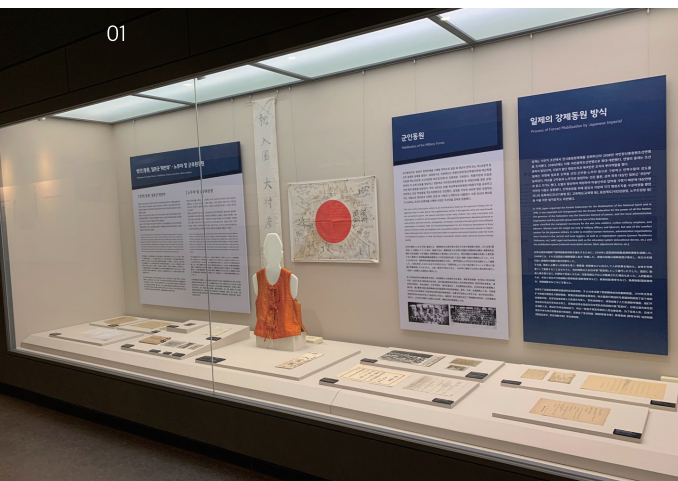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역사관



3월1일 재개관과 동시에 어린이 체험관과 독서 공간 '다독다독'이 신규 개관하였습니다. 조성 중에도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았던 만큼 개관 첫날부터 어린이 관람객들이 분주하게 방문해주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는지 체험관이 있는 7층으로 바로 올라오는 관람객들도 많아졌습니다. 체험관에서 즐겁게 활동하다가 쉬고 싶을 때, 사람이 많아 대기해야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다독다독'을 이용하면 됩니다. 꿀이득, '다독다독'은 따사로운 햇빛과 빈백 맛집입니다.

글 | 역사관 반선영

- 01 02 상설전시실 개편 후 모습
- 03 '백범 김구 선생에게 듣는 근대이야기'(6층)
- 04 어린이 체험관(7층)
- 05 06 어린이체험관과 어린이 독서 공간 '다독다독' 내부(7층)



나는 강제징용자입니다

열다섯 살에 아버지 대신 강제징용
“불량 나면 조선인 탕... 숨도 못 쉬고 일해”

그림자 인형극을 모티브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강제동원 생존자의 실제 이야기 담아

이성우(92, 李聖雨) 옹은 1929년 4월 27일 황해도 벽성군 추화
면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열다섯 살이던 1944년 2월경에
강제동원 대상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일본 가나가와 현에 있는
일본정공주식회사에 강제징용되어 해방 후 귀환할 때까지 약 2년
간 항공기 베어링을 생산하는 노역에 시달렸다.

역사관은 이성우 옹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어린
이와 청소년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강제동원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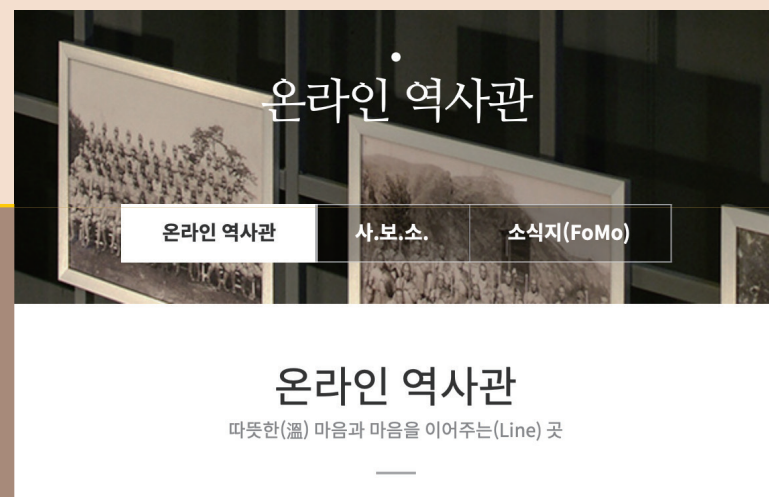
이성우 옹의 이야기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보세요



이성우 님 1923년생
이야기의 실제 증언자



조만간 일본 군수공장으로 일하러 떠나야 하니



온라인 역사관

[온라인(溫-Line) 역사관 : 따뜻한(溫)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Line) 곳의 줄임말. 비대면 관람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야심차
게 기획한 홈페이지 게시판의 명칭.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모아~ 모아서! 온기로 채운다는 원대한 포부
가 담긴 말. 앞으로 강제동원 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영상을 선보일 계획]

“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



안세홍 작가 초청 전시

이번 온라인 전시 영상은 안세홍 작가가 지난 25년간 작업한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피해자의 사진과 증언을 활용한 것으로, 해당 문제가 더 이상 왜곡, 은폐되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의 절실한 마음을 담았다. 작가는 영상 제작을 준비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개인의 기억과 눈물이 아니라 모두의 역사와 인권 문제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전쟁 범죄의 관점에서 문제의 진상 규명과 반전 평화를 위한 초석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Carminda Dou

(B.Estimated at 1926-2016 / in Tilomar, East-Timor),
Drafted year: 1942, 16y/o estimates, for 3 years

카르민다 도우 (동티모르)

1942년, 16세의 나이로 3년간 고초를 겪었다.

黃有良

HUANG You-Liang

(B. 1927-2017 / in Hainan, China),
Drafted year: 1941, 13y/o, for 6 months

황유량 (중국)

1941년, 13세의 나이로
6개월간 고초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것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에 안세홍 작가가
1996년부터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일본군‘위안부’,
성노예 140여 피해여성의 고통을 기록한 사진과 증언 담아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연구는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

글 | 역사관 장민성

조선인 징병의 시작

육군특별지원병제와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육군특별지원병제는 1938년부터 1944년 4월 징병실시까지 조선인을 상대로 시행된 징병제도이다. 일제는 만주사변 직후인 1932년에 조선인 징병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전장에 조선인을 필요로 할 만큼 병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미루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소규모 지원병제를 실시하게 된다.

제 1기생의 선발은 전단을 통해 '2천3백만 민중의 피를 끓게 한 조선인육군지원병 훈련이 개시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할만한 중대사였다. 조선인에게 처음으로 병역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총독부로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생도 채용규칙만 살펴봐도 신체조건과 사상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력서와 자산 및 소득증빙서류, 부윤 또는 읍면장의 보증서, 신체검사표 등을 제출해야 할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야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지원병훈련개시전단(1938)

특별, 지원이 아닌 차별, 강제 징병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인 사상자가 늘고, 일본인들도 징집을 기피하는 상황에 조선인들을 총알받이로 쓴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자발적'인 지원자는 점차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통제상에서는 지원병 수는 대폭 증가하는데, 이는 육군성과 조선총독부에 의한 강제력, 관청의 총력전과 같은 중용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별', '지원'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내선인 간의) '차별', 강압에 의한 '강제'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훈련소 생활과 수료 기념 증정품

현역병은 육군병지원자 훈련소에서 6개월 간 일본어와 교련, 황국화 교육을 받은 후, 자대에 배치되어 1년 간 복무하였다. 제1보충역은 현역병과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일단 귀향 조치되어 지정 부대에서 3개월의 병과(兵科) 교육을 마치고 제대하였다. 훈련소를 수료하면, 수료 기념 메달, 기념 앨범, 증서 등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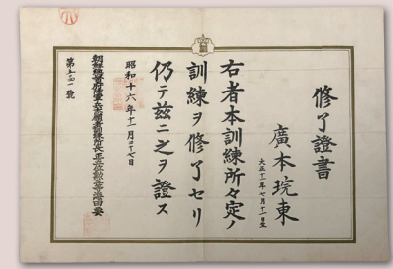
▶ 조선총독부제2육군병지원자훈련소 입소식 후 평양신사참배 광경(김종근 기증)



▶ 스모대회 모습(이완동 기증)



▶ 수료증서(이완동 기증)



▶ 제7회 수료기념메달(인금수 기증)



▶ 1940년 전기(前期)수료기념앨범(김한수 기증)

역사관의 밤 네 번째 이야기

지옥섬 군함도에는 지금 무슨 일이?

출처 : 역사관 인스타그램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현에
군함과 비슷하여 군함도로 불렸습니다.

5,000여명의 거주자를 위한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영화관 등이 세워진 **침단의 섬**이자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이면에는 **참혹함**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그곳은 **감옥섬**,
지옥섬이었습니다.

①

1) 1943~45년 사이에 500명에서
800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하시마 탄광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 조사(2012)

2) 700미터의 지하 40도가 넘는
해저탄광에서 12시간 이상 누워서
석탄을 캐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질병에
고통 받았으며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다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②

그리고 그들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일본인들의
차별속에서 비참히 죽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함도**는 2015년에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받았습니다.



(사진=국가기록원)

③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이 있었습니다.
군함도의 **역사 전체를 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일본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5년전의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일본의 **당당한 약속**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④

먼저, 그들은
유네스코 '보존상황보고서'(2017년)에서
'일본의 산업을 뒷받침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해
가혹한 환경 속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인식에서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15일에 개관한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증언**을 전시했습니다.

⑤

그 내용은 아버지가 하시마 탄광에서
일했다고 하는 재일조선인 2세는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저건 조선인이야'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강제동원피해자와 **단 한번도 "대화"**하지 않은
왜곡된 전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전시에 대항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리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일본정부는 세계유산등재 당시의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다는
한·일 64개 시민단체 항의 성명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⑥

2020년 7월 열렸던 국제 토론회에서
'인류 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 사회의 신뢰'라는 주제에서
"리처드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강제동원이 희생양이 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본이 제국주의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청산해야 가능합니다."

5년전,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일본의 모습은 어디갔을까요?

⑦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지금도 강제 노동의 역사를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평화와 연대의 시대를
향하기 위해선, 우선 일본이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을까요?



출처=THE FACT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군함도 강제노동 역사 부정"

⑧

일제강점기 자원수탈의 현장 부산 수영구 ‘우암사’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를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 다양하게 자원을 수탈해갔다.

특히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광산 자원 수탈이 이루어졌는데, 부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제는 황령산, 금련산, 백양산, 이기대, 기장군 달음산 일대에서 철광산이나 금속 자원 개발을 시도했다. 그리고 광산 자원 수탈 과정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사실도 ‘기장군 일광 광산 마을’, ‘수영구 망미동의 광산촌 마을’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도심 속 광산을 가다

부산의 강제동원유적지를 찾아보다가 폐광산을 법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곳이 있다. 작년에는 수십조 가치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다는 주장이 화제가 되어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전력도 있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 곳을 한번 탐방해보기로 했다.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는 ‘광산촌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일제가 금련산 일대에 20여개의 갱구를 파고, 당시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인근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이 이 마을의 시초이다. 6.25한국전쟁을 거쳐 현재는 100여 가구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산동네라고 한다.

이 마을 안에 위치한 ‘우암사’가 바로 이번 탐방의 목적지이다. 금련산 황금길 코스 중 하나라는데, 평소에 산행을 즐겨하지 않아서 그런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차를 몰고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정문을 지나 더 올라가니 우암사로 가는 이정표가 보였다.



01



02

01 우암사 이정표
02 법당으로 사용되는 폐광 입구

급경사를 오르고 넘어 만난 동굴 속 부처님

이정표를 지나 급경사가 1Km 정도 이어지는데 이정표에는 ‘여기서부터 저단기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내가 모는 차량은 오토였기 때문에 고장이 걱정되어 근처에 주차를 한 후 걸어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올라가는 도중에 짐을 실은 1톤 트럭이 우암사 쪽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사였다.

10분정도 급경사를 오르고 넘어 우암사에 도착하니, 주말에 내린 비로 산위에서 많은 양의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폐광 입구를 오른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구 주변과 갱도(법당)안에서 보이는 녹색 빛은 이끼가 아니라 구리성분이 산화하여 나는 색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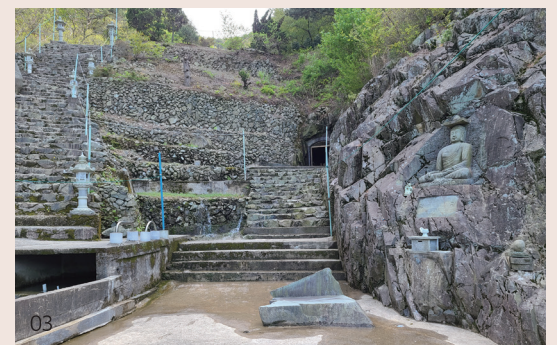
부산에는 용호광산, 일광광산 등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자원 수탈 및 강제동원지였던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부분 폐광 이후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입구가 막혀있어 내부를 좀처럼 보기 힘들다. 하지만 우암사의 경우, 용도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갱도가 그대로 살아있어 실감 나는 간접체험을 할 수 있다.

갱도 내부에 들어가니,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안개 같은 것이 서려있었다. 십 수 미터정도 이어지는 길에는 여느 사찰과 다름없이 조각상들이 들어서 있었고, 갱도 끝에 부처님 상이 2구 있었다. 법당으로 쓰고 있는 갱도는 이곳 말고도 더 크고 깊은 곳이 하나 더 있었지만, 이날은 빗물 때문에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부처님 앞 불전함에 지폐를 넣으며, 일제강점기에 고통 받으셨던 분들의 안식과 세계평화를 빌었다.

대한불교 총화종 우암사 방문정보

- 주소: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산114
- 대표번호: 051-754-8874

글 | 역사관 안지훈, 반선영



03 우암사 전경과 폐광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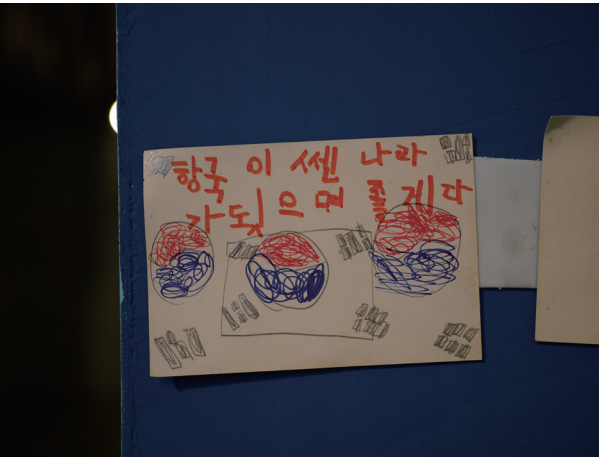


04

04 폐광 내부
05 폐광 끝 불상



05



오길 참 잘했다, 역사관 #오길참잘했다 #꼭가봐야할곳

삼일절, 한민족이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대연동에 위치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부산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이제서야 가보게 되었다니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역사관 관람을 하는 동안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사진과 글도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역사관에서 강제동원지에서의 생활을 담은 음성과 그 당시를 생생히 떠올리는 피해자 할아버님의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일본이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기록이자, 살아가면서 잊지말아야 할 생생한 역사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획전시인 ‘죽음의 태극-버마 철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 갔을 때 ‘콰이강의 다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음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전시를 통해 그 역사현장으로 되돌아가니 얼마나 참혹한 현장이었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했

습니다.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졌을 관람객들이 써내려간 마음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저 또한 나지막이 “사랑해요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역사와 현재가 마주하는 공간,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의 위안소뿐만 아니라 탄광 노동현장까지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기록에 차마 입을 다물 수 없었지만 이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바르게 마주해야 할 가슴아픈 역사입니다. Lest we forget, 정말 잊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지금 이순간에도 다시한번 되뇌어봅니다.

부산에 살고 있지만 아직 역사관에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가볼만한 곳을 찾으시는 가족들도 역사관에 가서 제가 느꼈던 그 커다란 울림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 인플루언서 장그린

<https://blog.naver.com/sj1313579/222260983722>



아이와 역사관

#아이와함께갈만한곳 #역사적의미와재미

따사로운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 어린 아들과 함께 할 나들이 장소를 검색하다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렘과 즐거움으로 웃으면서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웬지 숙연해지는 마음과 아직은 마냥 즐겁고 신나는 일만 가득한 어린 아들이 혹여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걱정과는 달리 무겁고 어두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체험관과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 있어서 온가족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추모공원과 어린이 체험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전시실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지만, 어린이체험관에서 군함도 모양의 미로와 부관연락선 모양의 배모형을 통해 어렵거나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재미, 아이와 함께 갈 만한 곳을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고 싶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입니다.

글·사진 | 울산 김수영

역사관 방문기 참여안내

역사관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린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2020년 국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8종 가운데 3종에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등은 2017년 광주시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2007년부터 매주 금요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인 '금요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요행동은 잠시 중단하였지만, 회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항의편지를 보내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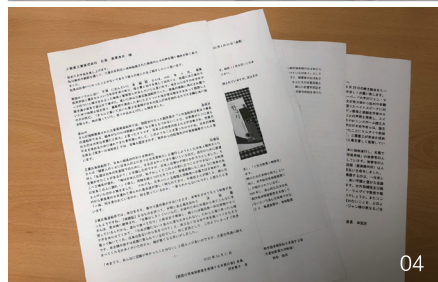
글 : 가와이 아키코(河井章子)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



01 1944년 6월 나고야시 아츠타신공을 찾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02 03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금요행동'
04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보낸 항의 편지

“설령 편지가
읽히지 않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역사가 되기에
우리의 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



역사관 교육 프로그램 소개

글 : 역사관 이정섭

역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올해 비대면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역사관 홈페이지(museum.ilje.or.kr)에서 신청 후 유튜브 영상강의(교재는 우편수령)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문의: 051-629-8633

찾아가는 교육

1. 내 책상 위의 소녀상(교육기관 단체): 일본군'위안부'제도의 탄생배경과 문제점 등을 배워보고 평화의 소녀상 석고부조를 만들어본다.
2.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의 탄생과 역사를 알아보고, 태극기 네임태그를 직접 제작해보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3. 별 헤는 밤: 일제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노무동원, 군인동원, 군무원동원, 성(性)동원)에 대해 배워보고, 평화·인권 무드등을 만들어 본다.
4. 출발! 역사관 탐험대: 박물관 관련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꿈길(교육부)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비대면 교육

1. 내 책상 위의 소녀상(개인, 온라인): 일본군'위안부'제도의 탄생배경과 문제점 등을 배워보고 평화의 소녀상 종이인형을 만들어본다. 강의는 유튜브 녹화영상으로 진행된다.
2. 다시 쓰는 방구 아저씨: 방구 아저씨라는 동화를 바탕으로, 방구 아저씨 낭독을 듣고 팝업북을 제작해보며 강제동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강의는 유튜브 녹화영상으로 진행된다.
3. 모바일 체험활동지: 역사관 상설전시실에서 자율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사관에 비치된 QR코드나 역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4. 역사관 미리보기: 역사관 방문 전 선행학습용 교재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10:00 ~ 18: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Homepage <http://museum.ilje.or.kr>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역사관의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1층 : 올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어린이와 함께 역사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마스크스트랩과 3D프린팅 모형(일본군'위안부'소녀상, 포모캐릭터)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 문의 : 051) 629-8634

우리 함께해요

역사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문의 : 051)629-8600, 8621



김동한 (출입관리)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디부터 관람해야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해매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승우 (출입관리)

“여러 봉사활동을 해보았지만, 코로나로 생겨난 출입관리활동도, 이곳 역사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처음 해보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어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이채은
(어린이체험관-다독다독)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였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에 기쁘고 보람찬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여수연 (어린이체험관)

“역사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뉴스에서만 접하던 강제동원이 더욱 깊은 상처와 고통이 서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동원의 실상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관에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기부 팔찌 '시노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시는 점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나 역사관 대표 이메일(museum@ilje.or.kr) 혹은
역사관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